

김 일등병

“면회는 한 시부터요.”

보초는 딱 끊어 말하고 어깨를 흔들어 총을 고쳐 메는 동작을 하였다. 이 동작으로 그 사람과의 관계에는 금을 긋고 다시 무표정한 얼굴로 돌아갔다.

물은 쪽은 머쓱하고 한참 지싯지싯하다가 전체가 기울어진 블록담 옆에 늘어서 있는 사람들 틈으로 들어가 선다. 머리에 쓴 명주 수건을 턱아래에다 아무렇게나 매고 몇 년이나 개어 두었던 구김살이 아주 펴지지 않은 명주 치마를 바로 여민 걸자락을 쓱 돌려 허리에 꽂고 불끈 동인 중동매, 옷고름이 개어 두었던 대로 몇 층이나 접힌 흰 옥양목 저고리에 마디가 마른 나무 같은 손가락에는 은가락지까지 끼고 있다. 시골 마나님의 최대의 성장(盛裝)이다.

“오매. 쪽메이만 더 기다리면 뭘 끼인데.”

줄에 늘어섰던 옥색 치마 진분홍 저고리의 시골 처녀가 두어 발 물러서서 어머니 자리를 내어 주며 얼굴을 붉힌다. 어머니는 머리를 흔들고 학술을 쉬었다.

“보이소. 멘해(面會)는 이분이 처음인교?”

뒤에 섰던 사십 전후의 부인이 말을 걸었다. 기미 낀 얼굴에 얼룩덜룩 분을 바르고 풀머리 끝을 약간 뻗친, 맹물로는 아니 보이는 이 고장 부인이다.

“야아. 가아가 다쳐서 빙운(院病)에 있단 말이사 들었지만 집이 함안이라 올 수가 이이야지요.”

어머니는 또 머리를 흔들고 한숨을 쉰다.

“오늘이 삼지 아잉교? 아이고 삼짓날, 가아한테 쑥굴레(쑥굴리) 묵일라고 이리 바삐 왔는데.”

“쑥굴레라니요, 함부레 그런 생각 마이소. 묵는 건 하나도 몬 가지고 들가요.”

“무어라구요?”

그 뒤에 섰던 무명 두루마기애, 낡은 중절모를 쓴 오십 가까운 남자가 줄 밖으로 한 걸음 나서며 묻고, 미간에 주름을 잡았다.

“묵는 건 몬 가지고 들가요, 일절 금지라요.”

중년 부인은 ‘금지’라는 말에 힘을 주었다.

“허!”

남자는 힘없이 줄에 들어서고 한손으로 코를 펑 풀었다.

“뭐라카요?”

담에 기대 쪼그리고 앉았던 젊은 여인이 궁금한 듯이 고개를 빼며 묻는다.

“음식물을 일체 안 받는다구요, 허.” 하고 바른손에 든 보따리를 내려다본다.

“예에?”

여인은 아 그런 말 같으면, 하는 얼굴로 도로 주저앉았다.

옛날의 소위 봉안전(奉安殿) 자린 듯한 육군 병원 한구석, 돌층계로 쌓아 올린 수목이 우거진 곳에서, 목발을 짚은 채 담 아래를 내려다보며 육군 일등병 김영배는 면회인들의 말을 무심히 듣고 있었다.

담에 붙어 늘어선 면회인들 중에는 큰 보따리를 들고 있는 사람은

모두 오늘이 처음인 모양이고, 아무것도 안 든 사람들 중에는 어느새 익숙해진 얼굴도 간간 보였다.

무명 두루마기의 남자에서 대여섯 사람 건너 담에 기대 앉아 있는 노인은 올 때마다 울고 가는데, 오늘은 아직 면회도 하기 전에 울고 있었다.

둘레에 앉아 있는 사람들도 모두 옷고름을 눈에 대는 것을 보면 아들인지 누구인지는 모르나 환자는 어지간히 중태인 모양이다.

고름을 눈에 대고 있는 사람 중 얼굴이 불콰한 엉덩이가 퍼진 아주 먼네는 영배와 한 병실에 있는 정희영 상사의 어머니로 올 때마다 소매 속에 먹을 것을 감추고 들어온다.

영배는 목발에 힘을 주고 담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오늘따라 면회인이 많다. 군인도 있다. 월급쟁이인 듯한 청년도 섞여 있고, 중학생 소학생 이윽고 꽃같은 아가씨들도 줄에 들어 있다. 아가씨들은 꽃같이 단장하고 손에는 꽃까지 들고 있었다.

함안서 왔다는 아주머니 말대로 오늘이 삼월 삼짓날인 까닭도 있으려니와, 일요일이라는 것이 더욱 절실한 이유인 모양이다.

삼월 삼짓날 —— 일요일 ——

문득 영배는 우스운 생각이 들었다.

삼월 삼지면 벼들강아지가 피고, 보리밭이 부드러운 봄바람에 가는 물결을 일으키고, 울타리의 복사꽃이 만발하였다. 어느덧 추녀 끝에 제비가 와서 집을 짓고…… 즐거웠다. 삼짓날 오는 제비, 아니 그는 꼭 삼짓날 오는 것은 아니겠지만 하루 이틀쯤 어긴다 하더라도, 그가 오는 날은 그에게 있어 항상 심짓날이었다.

꽃이 피고 지고 제비가 오고 가고…… 이렇게 자연은 한없이 정 없이 흐르는 세월에 매듭을 지어 주었다.

산골 태생인 그의 시간 관념은 그렇게도 소박하였던 것이다.

하루가 스물네 시간이고 일주가 이례, 옛새를 경과하면 휴식일인 일요일이 오고…… 영배는 요즘 와서 이 수작이 새삼스레 기이하다.

일요일 —— 먼저 일요일날 외출하느라고 새로 갈아입은 윗저고리가 아직도 새옷이라는 관념을 벗어나지 못했는데 벌써 이레가 또 경과되어 일요일이 왔다.

영배는 그가 부상을 입었을 때를 상기하였다.

깊은 가을, 그들은 ○○부락에 주둔하고 있었다. 전국(戰局)이 어찌되어 가는지는 몰랐으나 승전이라는 것은 뚜렷한 사실이므로 병사들의 마음은 활달하였다.

모닥불을 놓고 산에서 따온 밤을 구우며 웃고 즐기는데 갑자기 빨치산의 습격이 있었다.

대장의 기동성 있는 지휘 아래 각자 부서에서 대기하였을 때의 그 긴장, 몸을 땅에 깔고 기관총 방아쇠에 손을 대며 적이 사정 거리에 이르기를 기다리던 그 순간, 박눌(朴訥)한 영배로서는 아무리 애를 써도 표현할 수 없는 그 순간, 아아 얼마나 지루했더냐? 그는 그 몇 분 동안에 완전히 하나의 삶을 살아 버렸던 것이다.

그런데, 지금은 이 몇 쟁을 그저 ‘치료’의 두 자로만 메워 오고 있는 것이었다. 시간에도 양(量)과 질이 있는 것인가.

그는 꾹 웃고 또 담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김 일등병 무얼 보구 있어?”

한 병실에 있는 박 중사가 싱글싱글 웃으며 옆에 와 섰다.

“오늘은 ‘샨’이 많이 왔는데.”

그는 새하얀 붕대로 어깨에 멘 부자유한 팔을 담 위에다 기대 놓고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영배는 까닭 없이 얼굴을 붉혔다.

“저 까만 벨벳 치마에 흰 저고리 입은 애 말야.”

무엇이 벨벳이고 무엇이 유톤이고 양단이고 하는 것은 영배도 오랜 치료 기간에 얻은 지식이었다.

까만 벨벳 치마에 새하얀 저고리를 입은 그 소녀는 다른 처녀들 틈에 끼어 있었으나 같이 온 것은 아닌 모양이었다. 말없이 조용히 기다리며 서 있었다.

혈관이 비쳐 보이도록 깨끗한 피부에 눈이 유달리 맑고, 이마도 미간도 넓어, 묘연(杳然)한 표정을 하고 있었다.

영배는 이 소녀를 어디선지 본 것 같았다.

어느 날 그가 병우들과 함께 거리에 나갔을 때였다. 남에서 미국 공보원으로 빠지는 큰길을 목발에 몸을 의지하고 가는 중 저쪽에서 화려한 덩어리가 되어 재재거리며 오는 처녀들의 일단과 마주쳤다. 그 중에 한 소녀의 차림새가 인상에 남았다.

다른 처녀들의 난한 색채에 끼어 엄숙하고 청순한 흑과 백의 콤비가 신선하였다.

그녀들이 그 옆을 지날 때 처녀들 중의 한 사람이 꽤 큰 소리로 하는 말이 확실히 들렸다.

“난 훈장을 많이 찬 장군님을 보면 위압만 느끼지만 상이병을 보면 뒤에서라두 절을 허고 싶두룩 존경과 친애와 그리구 눈물까지…… 그래 눈물까지 금치 못허겠어.”

순간, 영배는 가슴이 어는 것 같은 충격을 느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까만 벨벳 치마 흰 저고리의 그 아름다운 처녀의(그는 웬일인지 이 말이 그 처녀의 입에서 나온 것을 의심치 않았다) 이 말은 그의 모든 슬픔과 아픔을 씻고도 남음이 있었다.

지금 면회인들 사이에 끼어 있는 이 소녀가 그 때의 그 소녀인지 아닌지는 모를 일이다. 사실은 그 때 그 소녀의 얼굴을 그가 확실히 본 것도 아니라 아름다웠는지 그렇지 않았는지조차 모르는 것이다.

그러나 고아인 그에게는 삼짓날이 와도 쑥굴리를 가지고 힘껏 성장하고 찾아올 어머니도 누이도 없고, 일시 왼쪽 다리를 절단하려 하도록 중태에 빠졌을 때도 울어 줄 사람이 없었다. 소매 속에 먹을 것을 감추고 올 사람은 물론 없었다.

그러므로 언제나 면회인들은 그에게는 그저 사람들�이지 ‘면회인’

이라는 의의를 가지지 못했던 것이다.

그러나 이제야 그도 면회인들과 맷음을 가지게 되었다. 그것만으로도 그는 고독이 채워지는 것 같았다.

까만 벨벳 치마 흰 저고리의 소녀도 자기에게 걸쳐진 보이지 않는 줄을 느꼈는지 끌리듯이 눈을 들고 고개를 갸웃거리며 의아한 얼굴로 잠시 영배 쪽을 응시하였다.

이마와 미간이 넓은 묘연한 얼굴로는 감정을 엿볼 수 없었으나 그 표정은 호의에 차 있었다.

가엾은 김 일등병! 그러면 육군 병원 면회인의 한 사람인 다감한 소녀가 병원 안에 있는 검누른 얼굴을 한 상의병에 대할 때 다른 표정을 지으리라고 생각하였던가?

김 일등병은 얼굴이 확 취하고 가슴이 써늘하고 나릿하고 화해지는 것 같았다. 마치 박하 잎이나 씹은 것같이. 이윽고 그 나릿하고 향긋한 느낌은 상처처럼 그의 가슴에 남았다.

서울 출신인 박 중사는 소녀의 시선을 대담히 받은 후 씩 웃으며 영배의 어깨를 툭 치고 병동 안으로 들어갔다.

영배의 눈앞에서 면회인의 줄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담에 기대 앉았던 사람들도 당황히 일어나 줄에 들어섰다. 영배는 소녀가 손에 들었던 꽃을 고쳐 드는 것을 보았다. 무슨 꽃인지 다른 소녀들이 가진 것과는 다른 새하얀 꽃이었다.

면회인이 다 들어가고 난 후에도 영배는 우두커니 서 있었다. 전신이 느른하여 서 있기가 어려웠다.

그는 자신의 위치가 꿈같았다. 태백산 밑 산골 면장의 외아들로 태어나 귀염둥이로 자라던 몸이 농업 학교 이학년 때 아버지의 작고로 말미암아 우수한 성적을 아껴 하는 선생님들과 작별하고 부득이 퇴학한 후 집에 돌아가, 그리던 학교 생활, 그러나 때의 흐름은 그 상처도 씻어 주어, 어느덧 돼지 먹이 뜨물에 힘을 쓰는 농촌의 단순한 청년이 되어 있던 그였다.

흘어머니를 잊은 슬픔이 가시지도 않은 몸을 군대에 던지고, 종시 일관 명령하의 행동, 이윽고 상의병이 된 현재.

그는 얼굴을 들어 이 좁은 항도 처처에 서 있는 언덕에 눈을 던졌다. 고향을 나온 지 일년이 못 되건만, 그는 자라던 고장의 그 울창한 산들이 아련하였다. 그 산기슭에 사는 사람들도 그리 변하도록 세 월을 거듭한 것도 아니건만, 과거의 사람들이요 지금도 거기서 그 때 와 같이 삶을 다스리고 있으리라고는 생각되지 않았다.

그러나 역시 고향은 그리웠다. 애듯이 생각해 줄 사람도 없는 고향 이었건만. 아아 그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얼마나 쌓여 있는 것인가. 자랑하고 싶은 말, 놀라운 말, 기막힌 말, 장한 말——검누른 얼굴에 목발을 짚은 시골 출신의 상이병인 자기가 자기 견해와 의사를 안심하고 베풀 수가 있는 곳은 역시 고향밖에 없는 것 같았다.

어언 제시간이 지났는지 병동 내에서 면회인들이 쏟아져 나왔다. 까만 벨벳 치마의 그 소녀도 고개를 숙이며 잔걸음으로 병원 문을 나갔다.

소녀는 영배 아래를 지날 때 눈을 들어 담 위를 쳐다보았다. 이윽고 이번에는 한쪽 뺨에 우물까지 지어 보였다.

영배의 가슴은 이제 아프도록 뛰었다. 그는 갑자기 목발이 원망스러워졌다. 그러나 병실로 돌아가는 상이병 김영배의 다리는 오늘따라 더욱 몹시 절었다.

동향인 영배의 병실에는 황혼의 빛이 질었다. 영배는 덤덤히 침대에 걸터앉아서도 모르는 사이에 생각에 잠겼다.

땡그랑 땡그랑랑 땡그랑, 창 아래 골목길을 두부 장수가 지나간다. 저녁 연기가 저물어 가는 하늘에 고요히 올라 퍼진다.

맵고 뜨거운 두부 찌개—— 오랫동안 잊었던 그 맛이 향수와 같이 가슴에 떠오른다. 이윽고 아무 연관도 없이 까만 벨벳 치마의 그 소녀의 한뺨에 우물을 지은 깨끗한 모습이 떠올랐다.

넓은 이마와 미간을 가지고 비치도록 깨끗한 피부의 세련된 차림

새를 한 그 소녀가 자기에게 보인 풀기 어려운 수수께끼 같은 호의.

영배의 가슴은 똑똑 소리가 나도록 크게, 그러나 느른느른 뛰었다. 그렇다고 소박한 이 상이병은 그 소녀의 호의를 그 이상의 것이라고 자부하기에는 너무나 겸허하였다.

검누른 얼굴을 하고 한 다리를 저는 상이병——그러나 자기가 완쾌하여 씩씩하고 건강한 청년으로 돌아간다면 그 소녀의 호의를 지금같이 겹게 생각하지는 않으리라는 생각이 그의 머리를 스쳤다. 순간, 여지껏 전선에 재출정하는 것이 유일의 목적이었던 자기의 투병(鬪病)이 또 하나의 희망과 목표를 얻은 것 같았다. 식사 종이 울렸다. 그러나 영배는 전혀 식욕을 느낄 수가 없었다. 경상의 병우들이 식당으로 몰려가는 소리가 들렸다.

영배는 여전히 덤덤히 앉아만 있었다. 움직이기만 하면 그 도취에서 깨어질 것 같았던 것이다.

얼마가 지났는지 또 복도가 소요해지고 병우들이 식당에서 돌아왔다.

“김 일등병 왜 식사를 안 허루 갔어?”

박 중사가 성한쪽 손으로 그의 어깨를 툭 쳤다.

“네.”

영배는 겸연쩍은 듯이 씩 웃었다.

“지금부터 강당에서 ×× 악극단의 위안 공연이 있대. 얘, 김청자 두 왔다더라.”

박 중사는 영배의 팔을 끌다시피 일으키는 것이었다.

영배도 웃으며 같이 일어서 창 옆으로 걸어갔다. 그러나 그의 표정은 갑자기 험해졌다. 유리창은 짙어진 바깥 어두움으로 거울같이 신내의 것을 비치는데 영배는 그 유리창에 비친 자기 얼굴을 본 것이다.

눈동이 부석한 실룩한 눈 넓데데한 코, 이윽고 우둔한 두꺼운 입술 좁은 이마에 난 여드름, 순간 그는 허허 웃고 싶었다.

그는 이제야 까만 벨벳 치마의 그 소녀가 자기에게 한쪽 뺨에 우물 까지 지어 보인 이유를 알은 성싶었다.

검누른 얼굴을 하고 한 다리를 저는 상이병은 묘령의 처녀라도 서슴지 않고 한뺨에 우물을 지어 보일 수 있는 서글픈 영예를 지닌 존재였던 것이다.

스물한 살의 젊음이 어느 한구석에서 신음하였다.

만일 자기가 완쾌하여, 건강한 청년으로 돌아간다면 넓은 이마와 미간을 가진 묘연한 그 얼굴에서는 호의의 빛이 사라지고, 경계와 흑은 혐오의 빛이 들어설지도 모를 일이 아닌가?

김 일등병은 아무 말 없이 발길을 돌려 침대로 돌아갔다.

“왜 안 가려구?”

박 중사가 의아스러운 듯이 물었다.

영배는 대답은 않고 담요를 머리에서부터 쓰고 침대 위에 쓰러졌다.

조국에 몸을 바친 상이병에게 힘껏 보인 순진한 소녀의 감사와 찬양과 위로에 찬 얼굴이 다시 눈앞에 떠올랐다. 고마운 일이었다.

그러나 담요 밑의 영배의 얼굴에는 눈물이 줄기져 흘렀다.

먼 곳에서 쾌활한 재즈 소리가 들려왔다. 영배는 그 소리에서 귀를 막기나 하려는 듯이 더욱 담요를 얼굴 위로 끌어 덮었다.

(1951. 4. 5.)